

전남교육청, 현장 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소통과 나눔

전문성 향상·교수학습 질 향상 기회 제공

‘온라인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특수교사들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교수학습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및 특

수교육대상자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운영해 교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교사 8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다지

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 설계하기’의 두 가지 주제로 열렸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다지기’의 경우 교육과정 문해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기, 교육과정 조망능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기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 설계하기’는 학교 급 별로 내용을 달리해 연수가 진행됐다. 유·초등 교사들에게는 꿈을 찾아가는 그림책 수업 설계하고 실천하기, 주제발표로 완성하는 수업 설계로

통합교육 실천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중등 교사 연수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더 나은 통합교육 환경 고민하기, 통합학급과 함께하는 활동 중심 수업 설계 및 실천하기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특수교육전공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내실 있고 활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사 대상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온라인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사진

실천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고흥군,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총력

자원봉사·민간자원 연계·복지위기 해소 앞장

고흥군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위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올 겨울은 한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주거, 의료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다소 예상되는 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보된 위기추정 가구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공적지원 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한 후원 물품 및 생계비,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백영기자

영광군에 마스크 400매 · 장애인 위한 패딩60벌 기탁

하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누리장애인복지회



하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최성숙)와 하누리장애인복지회(회장 남궁경문)는 코로나19 감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 제작한 순면 마스크 300매, 마스크 줄 100개, 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

을 위해 패딩 60벌을 영광군에 기탁하였다.

하누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6개월 동안 장애인들에게 마스크 제작과 다양한 만들기 교육을 통해 전남 장애인경진대회우승을 하였으며 그 성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위생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순면 마스크와 마스크 줄을 직접 제작하고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패딩을 기탁하게 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장흥군, 코로나 막는 ‘대학생 호루라기 방역단’ 운영

코로나19 경각심 높이고 대학생 일자리 마련



장흥군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 ‘대학생 호루라기 방역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출범해 30일까지 운

영되는 ‘호루라기 방역단’은 지역 출신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호루라기 방역단은 전통시장, 터미널, 식당, 커피숍 등 다중이용사

설을 순회하며, 호루라기를 활용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마스크가 없는 지역민에게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호루라기 호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행한다. 2021년 1월부터는 대학생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방역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전 군민에 KF94 마스크 6매씩 지급

완도군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 군민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6매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급은 재경청산면 향우회(김인수 회장)에서 기부한 11만 장(8천만 원 상당)과 20만 장

은 군에서 구입하여 총 30만 장을 배부한다.

마스크는 현재 읍면에 전달되었고, 이번 주 안으로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3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면 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김인수 재경청산면향우회

장은 지난 9월에도 고향인 청산도 주민과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다.

김선종 완도군보건소의료원장은 “현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고 강조했다.

완도=김광수기자

